

일본도 제작법

닛토호 다타라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귀중한 옥강(玉鋼, 다마하가네)을 생산하며, 일본도 장인들은 이것으로 예술품을 제작합니다. 매년 5 월쯤이 되면 옥강을 선별하여 등급별로 나눈 후, 일본 전국에 있는 일본도 장인들에게 판매합니다. 일본도 장인은 4kg에 가까운 옥강을 약 1kg의 칼몸(도신)으로 완성합니다. 이 패널 사진은 일본도 제작의 주요 공정을 보여줍니다.

먼저 옥강을 달구어 평평하게 만든 다음, 망치로 잘게 부순다(사진#1~2). 이어서 부순 파편을 층층이 쌓아 흙탕물과 재로 덮은 후, 다시 녹이는 과정을 거쳐 단단한 강철 덩어리로 만듭니다(사진#3~5). 이렇게 만든 강철 덩어리를 반복적으로 가열하고 구부리는 작업을 더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치밀한 강철이 완성됩니다(사진#6~7). 그런 다음, 경도가 서로 다른 강철을 조합하여 열로 접합한 후, 두드리며 늘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칼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(사진#8~11).

칼날 모양이 다듬어지면 담금질 공정에 들어갑니다. 하사키(베는 부분)와 칼의 평평한 면을 점토로 덮고 약 800도까지 가열한 뒤 찬물에 급속히 냉각시킵니다(사진#12~13). 담금질까지 끝나면 전문 장인에게 전달되어 갈고닦는 연마 작업이 이루어집니다(사진#14~19). 마지막으로 일본도 장인이 스페(나카고라 불리는 손잡이 안에 숨겨진 부분)에 자신의 서명을 새깁니다(사진#20).